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이광호

이런 세라 그리고 재희



## Luggage - Woven Bag

이광호는 평소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하자면, 재료와 사물 간의 불일치 내지는 뜻밖의 결합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재료가 지닌 고유성에서 벗어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호한 사물(Indefinite Objects)”(2014년 개인전 제목)을 만들어 사과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재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되, 재료와 사물 간의 오랜 관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이광호는 그 낯은 관계를 청산할 만큼이나 낯설고 일시적인 관계를 자신의 작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선해 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조부( )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물의 디자인 방식은 그 대상에 대한 비밀상적 탈주와 일상적 균형을 오갑니다. 예컨대, 일상의 물건들을 주워 새로운 물건을 곧잘 만드셨던 조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이광호는 일상의 재료들에 매우 낮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내 익숙해질 실용적인 물건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호가 이번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프로젝트에서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의 시트로 여행용 캐리어를 제작한 작업은 그의 상상력과 작업 방식을 가늠케 합니다. 과거에 해외 이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던 누군가의 사연을 듣고, 작가는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한 새로운 물건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가 마치 주물 뜨듯 운전자석 시트에 깊은 자국을 남겼는데, 그것을 모르는 타인에게 팔면서 시트를 갈아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베라’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자동차를 회상하는 이에게 이광호는 그때의 베라크루즈를 찾아내 오래된 자동차 시트로 직접 여행용 캐리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광호의 작품은 잃어버린 물건과의 뜻밖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동시에 신체의 흔적만큼이나 깊게 새겨진 한 개인의 기억(자동차 시트)과 끊임없이 이동하는 개인의 사유(여행용 캐리어)를 동시에 환기시킵니다. 글 · 안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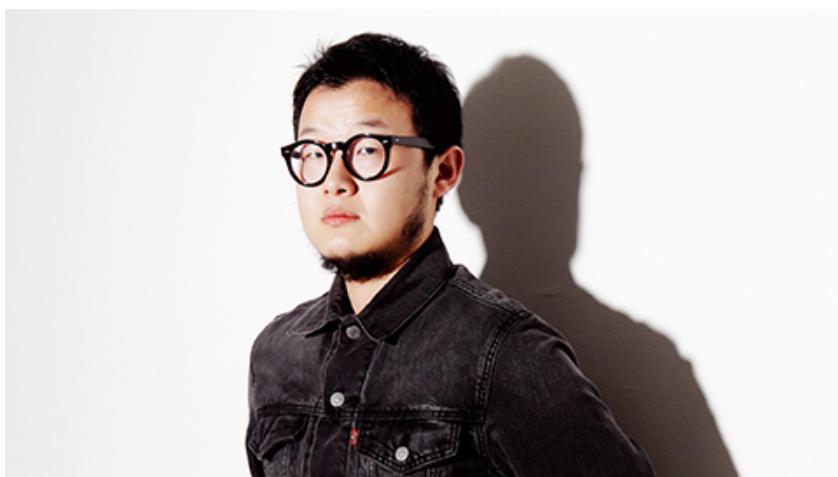
[brilliant memories] 작가 이광호 인터뷰 & 메이킹

## 사연 소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답사 체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친구 같은 차를 떠나보냈습니다. 차를 멀리 보내던 날, 그녀는 모든 짐을 빼고 마지막으로 차 문을 닫았습니다. 출발하는 차 속에는 그녀가 앉았던 좌석의 엉덩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자 추억인 자국은 그녀의 행복했던 젊은 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안녕 배라, 안녕 내 젊은 날. 처음 널 만나던 날의 떨림을 기억할게. 이제 다른 만남 준비하고 너와의 시절은 곧 흐려지겠지만, 첫 떨림의 아련함, 내게 남아 힘이 돼줘. 누구와든 아낌 받고 행복하렴.'

## 작가 이광호



### 작가 인터뷰

애지중지하던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기분을 공감합니다. 주인공이 차를 떠나보낼 때, 선명하게 남은 엉덩이 자국이 눈에 밟혔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멀리 이민을 떠나는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를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작업을 해보려 합니다.

### 프로필

수작업 매듭짓기로 알려진 이광호는 독창성 있는 가구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를 졸업 후 2013년 일본에서 <design museum-de sign de>전을 포함해 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뉴욕의 존슨 트레이딩 갤러리, 금호

미술관, 밀라노의 플러스디자인 갤러리, 디자인데이즈 두바이, 2011년 광주비엔날레 등에  
참여했습니다.